# 구조주의이론 갈등이론

## 두 시각으로 본 스포츠

### 사회체육 진흥위한 이론연구

## 교수단상

류 근 림
〈체대 학장〉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의 목표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한 복지사회 실현으로 1983년 체육부의 발족과 함께 사회교육이 활성화 되기 시작했으며 그 이전에는 대학의 교과외만 사회체육 분야가 다루어졌을뿐 큰 활동은 없었다.

그러나 서울올림픽 이후 사회체육에 대한 관심과 정부체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스포츠는 개인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어 스포츠를 즐기는 중은 일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국민의 권리로서 스포츠가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및 개선방안으로서 체육활동은 개인적 차원으로서 자아실현, 사회적 차원으로서 시민정신의 고양,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화합 및 복지사회의 구현 등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인간소외, 운동부족 그리고 각종 스트레스의 누적과 같은 사회병리현상은 사회체육을 통하여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체육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가 스포츠에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일상 속에서 또는 일상생활을 떠나서 자유로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활성화 조건 즉 조직,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재정 등의 문제가 뒷바침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현대 스포츠의 사회학적 이론의 이해가 선행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스포츠의 구조 기능주의 이론과 갈등이론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구조 기능주의 이론과 스포츠**

이 이론은 사회를 실체로 보고 사회적 실체의 본질을 규명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이 이론은 사회란 본질적으로 상호관련되고 상호의존적인 제도로 구조되어 있으며 이들 사회는 전체사회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사회의 항상성(균형) 유지와 존속을 위한 사회적 구성요소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이 구조 기능주의의 이론에서는 사회를 상호관련된 부분의 조직화된 제도로 이해하고 여러한 사회이론지 1)사회구성원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2)사회의 주요부분(가정, 경제, 교육, 정부, 종교, 스포츠)은 상호 보완적이며 조화를 이룬다고 가정한다.

또한 구조 기능주의 이론은 스포츠에서 강조되는 스포츠맨쉽 및 페어플레이 정신은 성취지향적 현대사회에 있어서 목표성취를 위한 합리적인 행동규범을 제시하여 준다.

즉,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일반 사회 또한 성공을 가장 가치있는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목표 성취는 타인과의 공정하고 정당한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졌을 때야 비로소 가치있고 의미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스포츠 참가를 통하여 배양되는 스포츠맨쉽이나 페어플레이 정신은 스포츠와 일반사회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승리 혹은 성공)를 성취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결론적으로 스포츠의 목표 성취기능은 체제유지와 관련지어진다. 체제유지는 목표 성취를 보장키 위한 사회적 기강이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사회체육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으로서 늘어나는 여가를 보다 건설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으로 유도한다. 또한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체육과 스포츠 활동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하겠다.**

### 구조주의 이론 목표성취 위한 행동규범 제시

## 자본주의 사회 팽배한 상업화 비판 갈등이론

스포츠는 전체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개인에게 학습, 내면화시킴으로써 사람들을 순응시키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경쟁적 스포츠는 참가자에게 높은 성취욕을 고취시킴으로써 현대사회의 생산성을 제고시켜 주고 또한 청소년의 성인 역할을 학습시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도록 잠재력을 길러준다.

둘째, 사회통합

스포츠는 개인적으로 상이한 사회성원에게 출신성분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감정을 유발시켜 사회의 통합 및 일체감을 형성시킨다. 한편 참가집단에는 흔히 강한 유대가 형성된다. 스포츠 단체, 후원회, 팬, 응원단 그리고 심지어는 수시의 관람자와 같은 비경기자에게도 이와 유사한 우애와 연대감이 조성되어 학교, 시, 도, 국가와 일체감을 가짐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을 이루게 된다.

셋째, 목표성취

구조 기능주의적 스포츠이론은 스포츠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정상성을 제공하여 줄 뿐만 아니라 스포츠와 사회구조의 관계성을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반면 갈등이론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되고 있다.

**2. 갈등이론과 스포츠**

현대의 갈등이론은 사회의 본질을 갈등의 관계로 보는 류에서는 마르크스이론에 기초하고 있으나 마르크스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생산수단의 소유, 비소유에 의한 이해상충에서 찾고 있는데 반해 현대의 갈등이론가들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사회적 가치의 본질적인 희소성에서 찾고 있다. 희소가치로서의 사회적 가치는 그것을 획득하려는 욕구에 비하여 항상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양과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의 구성원들은 누구나 를 막론하고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더욱 많이 획득키 위하여 끊임없이 경쟁하게 되는데에서 갈등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사회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질서의 상태는 사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며 강제적으로 조성된 결과에 불과할뿐 사회의 질서가 사회 내부의 조화로운 균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믿는 신념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첫째, 신체적 소외

갈등이론적 관점은 스포츠가 사회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소외를 조장하는 양태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

즉,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생산유형은 소외된 노동(alienated labor)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또한 소외된 노동의 형태로 창출되며 인간관계의 구조는 소외된 노동과 스포츠적인 노동(Sporting labor)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스포츠는 사회적 틀(Social framework)과 총체적으로 결합된 사회적 노동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그 결과 선배는 본질적으로 즐거움이나 성취감을 이룩하는 근원이 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선배가 기록수립이나 타인의 이익, 명성을 창출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강제와 사회통제

자본가집단이 노동자집단의 노동의욕을 고취함으로써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교묘한 수단 방법이라는 것이다.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질서의 상태는 스포츠 체계의 본질적 모습이 아니며 강제적으로 조정된 결합에 불과하며 구조기능론자들이 강조하는 스포츠에서의 질서가 스포츠체계 내부의 조화로운 균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은 한갖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스포츠가 국민의 관심, 활동, 여가추구 등 국가나 지배집단이 의도하는 목적대로 용의주도하게 노선화 하는데 이용된다고 지적한다.

셋째, 상업주의

자본가집단은 스포츠 관련 용품 및 소비재의 생산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하여 그들 소유의 스포츠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이고 물질만능주의 및 승리제일주의와 오도된 가치관을 팽배시켜 스포츠를 상업적 투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한다.

넷째, 국수주의, 군국주의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경쟁이 국수주의적 고립정책 및 군국주의적인 성향을 유발할 수 있는 우월감이나 진인성 및 정치적 불안을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 강단시론

홍 성 면
〈사대교수 영어교육학〉

# 용두사미격 교육개혁

최근들어 정부의 '세계화'란 캐치 프레이즈 아래 21세기를 향한 여러 교육개혁안들이 등장하고 있다. 즉 국민학교의 영어교육 실시와 교육활성화 방안으로서의 영어회화 교사 양성안 그리고 농어촌 학생에 대한 특례입학 등에 관한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교육부의 개혁안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 허울좋은 교육개혁 논의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장관이 바뀔때마다 새로운 제도나 개혁안이 떠들썩하게 발표되었다가 언제부터인가 슬며시 사라지고 마는 이른바 용두사미격이거나 짜깁기식 개혁으로 일관해 왔다는 점에 그 문제가 있다 하겠다. 문민정부의 출범이래 김영삼 정부는 지난 94년 2월에 스스로 '교육 대통령'이라 자임하고, 직속기관으로 '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강조하였으나, 막상 지난 1년동안 새로운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 예로,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대학본고사 폐지안을 제안하였으나, 대통령의 반대로 실행되어지지 못하였다. 그결과 오히려 고액과외와 입시지옥만이 성행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수학능력 시험에 본고사까지 치루어야 하는 입시의 이중고를 가져와 학생, 학부모, 일선 고등학교, 대학 모두가 망국의 입시전쟁에 시달려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1962년부터 6회 이상으로 부분, 전면, 혼합개혁의 반복과정을 거쳐온 것으로 현재의 수학능력시험은 미국의 수학적성검사(SAT : Scolastic Atitude Test)와 유사성을 보여준다. 수학과 국어, 단두과목의 점수와 고등학교 활동점수를 합한 점수로 실시하는 미국의 입시제도를 생각해 볼때, 열과목이 넘는 수능시험에 또한 본고사까지 치루어야 하는 우리의 입시제도가 그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로운것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교육부와 한국교총의 대립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부의 졸속 교육정책의 시정을 위한 교원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교총은 이미 2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고, 또한 앞으로 그 움직임을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서울대 발전 계획'은 법대, 약대, 사대 등의 대학원 과정으로의 전환이라는 학사개편의 내용과, 서울대의 새총장에 의해 밝혀진 사람됨과 사회봉사활동을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입시개편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립대와 교육부에 의한 이원적 입시개혁안은 전국 1백50개 대학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세계화'에 따르는 교육개혁과 함께 이제 밀려들어오는 교육개방의 압력은 한국의 대학이 맞고 있는 엄밀한 현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에 부딪친 우리 대학의 모습들은 어떠한가? 지난 2월에 발표된 서울대와 상위 7개 대학을 대상으로한 '대학평가 결과'는 국내대학들이 대학으로서 갖추어야할 최소의 기준을 갖추지 못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교수대 학생의 비율은 선진대학 수준의 약 1/2~1/5,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2~1/11, 도서확보율과 전산화는 약 1/10정도의 수준으로, 특히 재정면에 있어서의 열악한 사정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것은 곧 다시말하면 국내 대학의 15% 이상인 20개 대학을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개혁의 우선과제는 재정의 확보, 우수교수의 확보로부터 시작하여 제도적 장치, 처우개선, 시설 등 열거할 수 없이 많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다.

### 미국대학의 발전 노력

미국의 1970년대는 대학의 전성기였지만 그후 학생 수의 감소와 재정난으로 대학들이 문을 닫았다. Frirleigh Dickinson대학도 1993년부터 1년 기간을 두고 제일 먼저 실험한 본고를 폐쇄해야만 했었다. 다행인 것은 교수, 학생, 그리고 학교측이 합심단결하여 제2캠퍼스 통합 후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이었다. 그 예로 현직교수가 대학광고를 맡아 라디오를 통해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이었다.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으며 동문, 주정부, 학부모들이 재정지원을 견재하고 있다. 만약 국내 대학에서 캠퍼스를 폐쇄한다고 가정하자. 대학의 발전이라는 장래는 아랑곳 하지 않고 학생, 학부모, 동문들의 반대시위로 그 뜻은 성취되기 힘들 것이다.

근래 국내 대학의 총장선거제도를 보면, 이판사판 총장선거로 대학사회가 더럽혀지고 있다. 교수협의회단 임의단체가 총장을 투표로 선출하거나 찬반투표로 신임을 묻는 일도 개혁일까. 특히 사립대학은 재단이사회에서 설립이념에 맞게 총장을 선출함이 옳을 것이다.

###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

끝으로 가장 시급한 교육개혁은 언어교육이다. 미국의 다중언어·문화로 인한 이중언어교육을 우리나라의 어학교육과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 1990년 부시대통령은 미국의 2000년대 교육활성화 개혁에 서명하고 이를 강조하였다. 1993년 1억9천6백45만5천달러가 이 이중언어 교육의 예산안에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증가되고 있다.

세계화라는 교육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외국어교육을 위한 예산창출 및 기구를 조직하여 연구·개발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국제적인 학계개편과 학기조정이 있기를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의 대학생들이 세계의 대학생들과 경쟁하며 학문을 넓힐 수 있는 제도가 결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세계화 교육개혁안들이 백년지대계가 되기를 바란다.


# Some X-ing(씽)

Some X-ing [sʌmiksiŋ] ; pron.,n.,ad. 1)어떠들들의 생물 혹은 / 2)도무지 분류하기 힘든, 원래부정 때때 3) Something보 동등한 것이 등 이반인지 선택과목. A' 여신기 / 3)정보통등의 전국 / 2)정보·통신·전자·자동차 때때

**봄이** 깐 새학기—
뭔가 신선한 자극이 필요하데 미팅이나 소개팅이다 너무 귀찮은기 있지.
그래 결심했어. 이번 하기 전략과목은 빼빼팅으로 !
역시 내 선택은 틀림없다는 거 야ㅋ.
사귀팅에 남기는 매세지들이 기가 막히게 재밌드거야.
빼빼팅은 내 상상력에 도화선이 되어줬을 뿐 아니라 상대를 설레하게 해야한수 있어 풋풋로한 에너지를 줄어는 실속있는 방법이라는 걸 주시 깨닫게 됐어.

**정말** 생의를 기발한 방법으로 자기 PR을 했다는.
목소리가 좋은 애도, 있구노래는 잘 부르는 애도 있고, 재를 기가 막히게 하는 애도 있었어. 요즘 유행하는 크라잉 넛까지 말이.
어떤 애는 아예 주민등록번호서부터 사서함 비밀번호까지 남기놓은거 있지. 근데 유난히 귀에 띄는 애가 있었어, 바로 X라는 그애. 자신 있는 것을 갖췄을 뿐 아니라 집안일에 정말 자신있다는거야. 밥뿐아니라 요리까지 못하는게 없다는거지. 참 대단 난 이래라 싶었어. 외모, 성격, 능력 이런거 다 중요하지만 집안일까지 할수 있는 남자만이 완벽한 남자지.
무엇보다 난 난 외존해줄 남자가 필요하거든. 난 완벽하니까 말이. 그애로 결정하고 난 혼자서 만나기로 한 그 순간까지 설렘 기대로 가슴이 디게 뛰더라 ; 줄 일일이. 어렸을때부터 꿈꿔오던 완벽한 내 운명의 상대! 오늘은 만날 것같다는 예감이 머리를 휘 스쳤기 때문이야.

**드디어** 난 X를 만나보았어. X는 먼저 약속장소에 와있었어. 어머, 이럴때 어떻게 좋지? X는 정말 완벽한 선의 청조물로 생각됐어. 외모나 체인상도 물론 기대 이상이구 말야.
이야기를 나눌수록 X가 점점나게 좋아지는거야.
참은 이런 X가 집안일을 잘한다는 후광효과가 겹쳤기만 말야.
자리를 옮겨 저녁을 먹기로 했을때 ; 는 갑짜 전화를 하더군.
아무말도 없이 바로만 누르고 끊는거야. 난 좀 섹다르다 생각했을 뿐야. 그래도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차에 발써 시동이 걸려있는거야.

**쏟아지는** 음악 속에서 난 조심스럽게 본론으로 들어갔어. 근데 말 뿐이냐다 요리까지 잘한다면서요? 언제 그걸 다 익혀셨죠? 그러자 갑자기 X가 크게 웃더군. 음악소리보다 더 크게 말야. 얼마 전부터요. 다 이거 덕분이죠. ; 그가 보여준 바로 X-ing(씽)이란 빼빼였어.
그놈보기엔 세련된 빼빼일 뿐인데 그게 조금씩 빠져 X-ing(씽) 이래. 이 조그만게 방도 잡이고 TV도 켜고 사동까지 걸고 못하는게 없다는거야. 원격제어로 말이. 집안일 잘한다는 X의 비밀— 바로 X-ing(씽) 이었어. 그러니 보니 아마 사동을 건것도 X-ing(씽) 이었 거나.

**어떡하지?** 그순간 X는 안중에도 없구 바로 X-ing(씽) 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겨있거야. 물론 X가 X-ing(씽) 을 가지고 있었다는건 높이 평가해줘야 한다. 난 지금 이거 X-ing(씽) 을 내것으 만들고 싶은 생각 뿐이야. 아까 내 예감은 틀리지 않았나보. 내 운명의 상대는 바로 조금씩빠져 X-ing(씽) 이었어. 분명히말 정말 슬퍼우선이 될 것만 같아.
X-ing(씽) 이 나와 함께 하는 한 문제없지 뭐. 완벽한 나. ; 그리고 조금씩 빠져 X-ing(씽)! 우린 모든것을 갖춘 완성의 커플이야.
X-ing(씽) 이 바로 예감했던 Some X-ing ! 이번 빼빼팅의 성과, 정말 대단하지 않겠어?

X-ing Technopager (씽)

세계속에 한국을 빛내는 SAMSUNG 삼성물산 테크노페이저

■고객문의 : 전국 어디서나 080-023-4320(수신자 요금부담전화)